

환경활동

지속가능발전 (SDGs) 목표의 이해

그린메이커 스킬업 프로그램

2022년 그린메이커 스킬업 프로그램은 4월달에 진행한 에코헬스 그린코디 아카데미 기초과정의 심화과정이며 기후위기, 생태계, 탄소중립, 자연환경해설사 등 심도있는 이론교육과 스킬적으로 뛰어난 실습교육으로 진행되는 교육이며 이번 첫 개강식을 맞이했다.

“이제는 전 세계가 함께해야 할 때”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란?

지속가능발전목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약속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면서 오늘날의 필요도 충족시키는' 개념으로 사회와 경제 발전에 더불어 환경 보호를 함께 이루는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의미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2015년 9월 전 세계 유엔회원국들이 모여 합의한 것이 바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이다. 2016년부터 2030년까지 15년간 전 세계가 함께 추진해야 할 목표이며, 17개의 목표(Goals)과 169개의 세부목표(Targets)로 구성되어 있다.



출처 : 천안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국가 지속가능 발전 포털(ncsd.go.kr)

프로그램

사회적약자 가드닝 프로그램

사회적 약자 가드닝 프로그램

본 프로그램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치유정원 조성 활동과 정원 이벤트 참여 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우울증 치유효과 검증과 더 나아가 치유정원 조성 및 모델 구축을 위한 사업입니다.

활동일자	프로그램명	활동 내용	활동장소
10/11(화)	내 인생의 행복 손주들과 함께	- 손주들과 힐링하고 - 치유될 수 있는 정원답사 - 재밌는 보물찾기 활동 등	아름다운 정원 답사 (모나무르)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모나무르’ 현장답사 활동

천안시민 여러분들께서는 힐링하면 어떤 것이 제일 먼저 생각나시나요?

힐링은 우리 주변에 깃들여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천안의 아산에 위치한 모나무르는 자연과 현대적인 예술을 담은 공간, 복합문화공간입니다. 저희 나사렛대학교 산학협력단 스마트에코그린센터에서는 어르신분들과 함께 이곳에 방문하여 “내 인생의 행복 손주들과 함께”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손주들과 힐링하는 시간을 보내기 전에, 어르신들께서 모나무르 현장 답사를 하여 멋진 전시장과 아름다운 정원 등 다양한 현장조사를 진행하여 즐거운 활동을 잘 마무리 하였습니다!



환경테마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

세계 철새의 날



철새들의 위협 - 플라스틱

플라스틱을 포함한 우리가 버린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들어가 섬을 이루며 생태계를 파괴 하고 있습니다. 새들은 바다위에 떠 있는 플라스틱을 먹이라고 생각합니다. 먹이를 구하기 위해 몸속에 모든 것을 버리고 몸 자체만으로 날아야 하는데 소화되지 않고, 썩지도 않는 플라스틱으로 뱃 속 가득 차 비행을 할 수 없어 처참하게 굶어 죽고있습니다. 바다에 떠다니는 쓰레기 중 70% 이상이 플라스틱인 만큼, 해양 쓰레기로부터 생태계를 지키고 철새와 인간의 공존이라는 자연 생태계의 건강한 보전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출처 : 국가환경교육센터

출처 : 환경부, 환경보전협회

열대지방 새들이 우리나라에?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왜가리는 원래 봄에 우리나라를 찾아와 번식하다가 가을이 되면 따뜻한 동남아 지역으로 떠나는 여름 철새였습니다. 하지만 1980년대부터 일부 왜가리들이 떠나가지 않고 남부지방에서 겨울을 나기 시작했고, 현재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 없던 열대지방 새들이 목격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후투티’입니다. 후투티는 이스라엘의 국조로, 원래 더운 열대지방에서 겨울을 났지만 90년대부터 울산 등 남부지방에서 겨울을 나기 시작해 현재는 서울, 경기에서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처 : 국가환경교육센터

최신 뉴스 환경 정치 연예 스포츠

천안 성성호수공원 ‘쇠제비갈매기’ 첫 관찰…생태적 가치 우수

서울신문 이중익 기자

2022년 07월 20일

충남 천안에서 수변생태공원으로 조성중인 ‘성성호수공원’에 노랑부리저어새와 금개구리에 이어 멸종위기 쇠제비갈매기가 관찰됐다.

천안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들꽃마실)에 따르면 지난 7월 정례 모니터링을 통해 쇠제비갈매기 3개체와 금개구리 5개체를 관찰했다고 20일 밝혔다.

멸종위기종인 쇠제비갈매기는 여름에 우리나라에서 번식 후 겨울을 나기 위해 동남아 등지로 떠나는 여름철새다. 성성호수공원에서 관찰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이곳에서는 2015년 원앙을 시작으로 2017년 큰고니를 비롯한 조류 60종, 5200여마리가 조사됐으며, 2020년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인 금개구리와 천연기념물인 노랑부리저어새 1쌍이 관찰됐다.

천안시 관계자는 “성성호수공원이 멸종위기생물과 다양한 야생생물이 찾아오는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공원임이 다시금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천안시는 주민편의시설을 충분히 보충해 도심 한가운데 있는 이점을 살릴과 동시에 다양한 야생동물을 위한 서식지로 환경보전과 수질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괴한 공원, 천안시가 후회 안 할 방법 시민도 새도 고통 받는 생태공원, 대안 있는데 왜?

오마이뉴스 최병성 기자

2022년 05월 27일

엄마 새가 날개를 펼치자 갑자기 아기 새가 나타났다. 엄마 날개에 꼭꼭 숨어 있던 아기 새들이었다. 불논병아리는 품고 있던 알이 깨어나면 아기 새들을 자신의 등 날개 속에 업고 다닌다. 한 마리가 아니다. 어떻게 무려 다섯 마리나 되는 아기들을 등 날개 속에 다 품고 다닐 수 있는지 신비롭다……….

알이 부화되어 엄마 새와 함께 산책 중인 아기 새들도 있고, 지금도 알을 품고 있는 불논병아리도 있고, 이제 막 짹짹기를 하며 동지를 만드는 불논병아리도 있다. 불논병아리의 재롱을 볼 수 있는 이곳은 천안에 있는 업성저수지다. 도심 안에 있는 작은 저수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에서 만나기 어려운 놀라운 생태계를 지니고 있다.

이미 지난 <천안 호수공원의 충격, 다음 피해자는 천안시민들?>(http://omn.kr/1y9e5) <합성 아니냐... 천안시에 기적 같은 일 일어났지만...>(http://omn.kr/1yfe3) 기사에서 밝힌 것처럼, 이곳엔 노랑부리저어새와 원앙 등의 희귀 철새와 천연기념물들도 함께 찾아와 머문다. 멸종위기종인 금개구리와 맹꽂이도 살아간다. 저수지 옆의 작은 웅덩이에 금개구리, 맹꽂이, 두꺼비 등 6종의 양서류가 살고 있는 점도 다른 곳과는 다르다……….

새로운 소식

10월

2022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공지사항

- 10/4 세계 동물의 날
- 10/9 세계 철새의 날
- 10/16 세계 식량의 날, 화학조미료 안먹는 날
- 10/18 산의 날

- 10/7, 매주 금요일 소식지가 발행됩니다.
- 10/17, 10/24, 10/31 매주 월요일마다 그린메이커 스킬업 교육 진행
- 10/4, 10/11, 10/18, 10/25 매주 화요일마다 사회적 약자 가드닝 프로그램 진행
- 10/4~10/31, 찾아가는 맞춤형 그린메이커 환경교육 진행

코로나19 예방수칙

- ① 손 씻기
 - ②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
 - ③ 마스크 착용
- 꼭 잊지 마세요.

<http://www.caeec.kr/>
ecocheonan@kornu.ac.kr

@ecocheonan

환경지식

우리나라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조류 편

먹황새

먹황새는 몸 전체가 녹색·자색·청색 등의 광택이 있는 검은 황새입니다. 몸길이는 약 96CM로 황새보다는 작습니다. 부리와 다리, 눈 주위는 붉고 가슴과 배는 흰색을 띠고 있는데, 목 부분에는 작은 흰색 반점이 흩어져 있어요.

출처 : PxHere

크낙새

딱따구리과에 속하는 새입니다. 수컷은 이마부터 뒷머리까지 진한 붉은색입니다.

동남아시아와 인도에 분포하는 새이며 우리나라의 크낙새는 한반도에만 사는 고유 아종입니다. 크낙새의 아종 중에서 가장 북쪽에 분포하는 매우 희귀한 종이며, 1990년대 이후에는 남한에서 공식적으로 관찰되지 않고 있습니다.

흰꼬리수리

수리과에 속하는 새로, 우리나라 전국 해안, 호수, 강 하구에서 관찰되는 겨울철새입니다. 꼬리깃이 둥근 마름모꼴로 흰색을 띠니다. 주로 단독으로 생활하며, 1973년에 천연기념물 제243-4호로 지정되었으며,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우리나라를 찾는 개체 수가 급격히 줄면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되었어요.

출처 : doopedia.co.kr

출처 : 국가환경교육센터

행복한 천안시민과 함께 하는

천안환경교육 News



운영기관 : 나사렛대학교 산학협력단 천안환경교육센터 연락처 : 041-570-1847 주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월봉로 48 나사렛대학교 랫드리지2관 110호 천안시환경교육센터
발행인 : 박미옥 센터장 편집 : 서주영, 이은아, 김세진 디자인 : 이재진

센터 소개

천안시환경교육센터는 “세대 별 녹색복지”를 실현하고자 천안시 및 충청남도 지역사회 구성원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일상생활을 통해 환경 마인드와 인식을 증진하는 학습을 제공하여 보다 더 체계적인 세대 별 맞춤형 환경교육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사말

천안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천안시환경교육센터 센터장 박미옥 교수입니다.
선선히 불어오는 바람덕에 저절로 기분이 좋아지는 계절에 인사드립니다. 이상 기후 때문에 가을이 짧아진 것은 아닐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생긴 건 비단 저분만이 아니겠지요. 올해도 이 좋은 계절을 만끽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이번 10월은 그린메이커 스킬업 프로그램이 꾸준히 진행되며 사회적약자 가드닝 프로그램과 학습공동체 탄소중립 GoGo 그린우먼-시니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벌써 일 년의 마지막 분기를 맞이한 만큼 환경교육에 더욱 힘쓰는 천안시환경교육센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센터장 박미옥



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시민사회단체, 기업 등 다양한 환경 주체에서 생산된 학술적 성과와 기술, 제도 등 환경정보 취합 제공



지역사회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관련 단체와 교육기관 및 구성원이 함께하는 환경교육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협업 체계 구축



천안 시민 및 충남도민 맞춤형 환경교육을 통해 환경인식 증진, 생태감수성 증진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환경교육프로그램 및 교육 교재,교구 개발 보급

2022.10.07

October

제2권 7호

통 권 15호

주요 사업

환경교육
정보제공
서비스 사업

환경교육기관
컨설팅
사업

시민 환경교육 사업

찾아가는 맞춤형
그린메이커 환경교육

세대간 융합
그린메이커스 창업스쿨

“천안형”
탄소중립 실천교육

환경전문인 양성 사업

에코헬스 그린코디
아카데미

그린메이커
스킬업 특강